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정 점 옥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권정윤 교수지도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정 점 옥

인 준 서

정점옥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 배경변인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영아 개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와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영아의 기질은 영아와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와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 및 성남시에 소재한 16개 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 13개소, 민간보육시설 3개소)에 2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만 16개월에서 40개월 사이의 영아 148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영아기 사회·정서행동평가(ITSEA)와 영아기질검사(TTQ)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양육효능감 검사(PPC)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만 1세에 비하여 만 2세 영아가, 외동에 비하여 형제가 있는 영아가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또한, 영아의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영아의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기질에서도 영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접근성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높았으며 반응강도는 만 2세 영아에 비해 만 1세 영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및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세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기질간의 관계에서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성과 기분 수준이 높고 반응강도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기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는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요인 중 순종과 동기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6
1) 사회·정서적 행동의 개념	6
2) 사회·정서적 행동의 관련변인	14
2. 영아의 기질	18
1) 기질의 개념	18
2) 기질의 구성요인	21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24
1) 양육효능감의 개념	24
2) 양육효능감의 관련변인	27

Ⅲ.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도구	32
3. 연구절차	36
4. 자료분석	37
Ⅳ. 결과 및 해석	38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38
2. 영아의 기질	43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46
4.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및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48
Ⅴ. 논의 및 결론	52
1. 논의	52
2. 결론 및 제언	6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기질의 구성요인	22
<표 2> 대상영아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31
<표 3>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측정도구(ITESA)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3
<표 4> 영아의 기질 측정도구(TTQ)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4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PPC)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5
<표 6>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평균 및 표준 편차	38
<표 7> 성별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39
<표 8> 연령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40
<표 9> 형제유무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41
<표 10>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42
<표 11> 영아 기질의 평균 및 표준편차	43
<표 12>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	44
<표 13> 연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	44
<표 1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	45
<표 15>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46
<표 16> 영아의 개별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47
<표 17>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47
<표 18>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4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바람직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등 인간 생애 4단계 중 인간 행동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형성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선현들은 영유아기의 행동의 중요성에 관하여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역설하였다.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인간의 평균수명 80세를 기준으로 할 때 3%내외 기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경이로운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아는 신체적·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짐은 물론 정서적으로는 부모나 자신을 돌보아주는 대상에게 애착심을 형성하며,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점차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즉, 인간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이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3)

이와 같이 영아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곽주영, 이영, 1997; 김숙령, 1997; 민혜영, 1998; 박경자, 1992; 신지연, 2004; 이선영, 2006; 정미숙, 2007).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영아의 기질, 성, 형제 유무,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등이 연구되고 있다(이선영, 2006). 그 중에서 영아의 기질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Thomas & Chess, 1977). 기질의 구성요인에 관하여 다수의 학자들(Lerner, Palermo, Sapiro & Nesselroade, 1984; Rothbart & DerryBerry, 1981; Thomas & Chess, 1977)이 활동수준, 적응성, 접근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질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타인 양육이나 기관탁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영아의 사회·정서능력은 부모와 관계 속에서 그 기본 틀이 형성되어서 사회 속으로 나아간다(연미희, 1998). 결국,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영아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사회를 대하는 영아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직·간접적으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서동미, 1996; 연미희, 1998).

한편,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양육효능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양육의 인지적 요인 중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는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높고, 부모

역할에 수동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Gondoli & Silverberg, 1977).

이와 같이 영아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이나,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위 세 가지 변인들간의 관련성 연구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영아의 기질과 자신의 양육효능감간의 관계 및 이들 두 가지 변인들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상호작용하는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머니들이 자신의 영아에게 어떠한 양육태도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사회·정서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탁아를 이용하는 영아의 어머니들에게는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관탁아로 양육되는 영아들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각각 영아 및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후, 세 가지 변인들간의 종합적인 관련성을 도출함으로써 영아 개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고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와 어머니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영아의 기질은 영아와 어머니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와 어머니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사회·정서적 행동이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으로 순종, 주의집중, 모방/놀이, 동기유발,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영아의 기질

기질은 영아의 정서적 표현 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양상의 차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를 의미한다. 기질의 하위요인으로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즉 부모 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1) 사회·정서적 행동의 개념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며 학자마다 그 입장을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사회·정서적 행동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같은 의미로 사용(김미자, 1995; 나양균, 2006)하기도 하며, 사회·정서적 행동이 문화권이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가 사회마다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영아들은 다양한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감정표현 방법을 터득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가 출생 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집단 내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접촉을 통하여 그 집단의 가치·문화·규범들을 익혀 가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그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해가는 것이다(이정순, 2002).

이러한 사회·정서적 행동은 발달과정과 연관지어 사회적 능력과 정서 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이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필요한 사

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Ford, 1982), 정서 능력이란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서를 표현·이해·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aarni, 1999).

사회적 능력에 관한 개념은 접근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동물행동학적 접근방법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진화론적 견해로서 각 환경의 상황들이 개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들을 형성해 나감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관점이다(Connolly & Bruner, 1974). 둘째, 성격 구조론적 접근방법은 다양한 인성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을 사회적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Baumrind, 1973).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방법은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능력을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 방식의 소유, 상황에 적절하게 효율적인 기술을 나타내게 해주는 개인 내적 자원의 소유 등을 포함한다(Perry & Bussey, 1984).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나양균, 2006).

정서 능력은 출생 시부터 인간의 행동에 작용하여 그 후 일생동안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정서란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보다 분화된 기분상태로서,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의 대인관계를 시작·수정·유지·종결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

하게 한다(오영희, 우수경, 신금주, 2004). Draper(1990)는 정서란 영아가 느끼거나 경험하는 감정이며 영아의 두뇌체계나 신경체계에서의 변화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정서가 풍부한 영유아는 자신의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래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등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이다.

인간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정서적인 반응을 끊임없이 표출함으로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영아는 성장과정을 통해 부모, 형제, 또래, 교사, 이웃 등 사회적 경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서를 적합하게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며 긍정적·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합하게 조절해 나간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요구는 영아의 정서발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영아는 그 문화와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정서표현 규칙을 학습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정서표현이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는 영아의 정서사회화 관점이다. Malatesta(1982)는 사회적 경험(학습)으로 정서의 사회화는 모방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정서발달에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영아의 정서적 행동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머니는 영아의 요구에 효율적인 자세로 반응함으로써 영아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영아의 감정을 가정 이외의 사회 상황에도 연관시켜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Briggs-Gowan과 Carter(2001)는 사회·정서적 행동을 긍정행동과 부정행동으로 분류하고 긍정행동에는 순종·주의집중·모방 및 놀이·동기·감정이입·친사회적 또래관계, 부정행동에는 활동 및 충동성·공격 및 반항성·우울 및 위축·일반적인 불안·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로 구분하였다. 우선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이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이란 영아가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표출하는 부적응 행동 또는 양육자나 다른 영아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지연(2004)은 Briggs-Gowan과 Carter(2001)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사회·정서적 행동을 긍정행동과 부적응행동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관해서는 순종, 주의집중, 모방 및 놀이, 동기, 감정이입 및 친사회적 또래 관계 등 6가지로 세분하고, 후자를 다시 외현적 부적응행동과 내면적 부적응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논문의 목적과 관련된 긍정행동의 여섯 가지 하위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종이란 성인이나 부모의 요구 또는 금지에 따르는 행동이다. Gralinski와 Koop(1993)은 순종이란 부모의 개입과 감독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 수준의 자기규제를 반영하는 연속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순종행동은 그 이면에 놓인 동기에 따라 내적 동기에 의한 순종(자발적 순종)과 외부의 부모통제에 의해 동기화된 순종(상황적 순종)으로 나뉘는데, 내면화된 동기에 의한 순종행동이 더 진보된 순종행동이며 자기 규제의 기초가 된다(김미정, 2001). 자발적 순종은 어머니의 명령이나 요구를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열의 혹은 내적 의무감의 동기에서 비롯되어 어머니의

조정이 필요하며 어머니의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행동이다. 이에 비해 상황적 순종은 순종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순종이 상황적으로 결정되며 부모의 조정이 있어야 계속 유지된다(Kuczynski & Akson, 1995). 영아들은 자율성 발달로 인해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성인의 지시나 요구에 반하는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성인의 지시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다시 말해 순종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 주의집중이란 한 개 이상의 여러 자극이 있을 때 어떤 한, 두 개의 특정 자극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가능한 몇 가지 대상 또는 생각의 흐름 중에서 하나를 마음속에 생생한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영채, 1995).

일반적으로 주의집중은 선택(Selection), 유지(Maintenance), 전이(Shift)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택이란 부적절한 것으로부터 주의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지는 자극이 일단 선택되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주의를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전이란 주의를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의집중은 외부세계와 내면세계를 모두 포함하며, 시각적인 것에서 비시각적인 것으로 확대된다(Pick, Hess, & Frankel, 1974). 영아들은 다양한 사물과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분산되기 쉬운데 흥미로운 자극이 제시되고 영아들이 선택, 유지, 전이 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행동이나 사물에 대해 관심 있는 시선을 보내고 주의집중을 통제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하게 된다.

셋째, 모방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받

달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영아들은 다른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한 행동을 따라하며 모방행동이 발달하게 된다. 특히 영아는 모방을 사용해서 부모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행동이나 대화의 반응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영희(2000)에 의하면 이 시기는 모방 행동이 가장 동기화되어 있는 시기로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기본이 되는 행동이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아들은 모방행동을 놀이로 표현하는데 이를 가상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물을 대하지 않고 사물의 모습을 떠올리는 표상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상징능력과 언어능력이 발달하고 상상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의 인지구조 발달과 관련이 있다(Hughes, Elicker & Veen, 1995). 다시 말해, 놀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주인공화할 수 있고, 어떠한 사물을 다른 대상으로 대치하는 능력이 있으며, 놀이의 흐름이 연속성이 있는 연결된 행동으로 구성된다. 영아는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되며 이때 성인이 어떻게 중재해 주느냐에 따라 놀이의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진다. 놀이의 지속 시간이 짧고 놀이의 내용이 단편적인 것이 특징이나 이 시기의 또래 간 모방을 통한 놀이는 이후의 협동놀이를 촉진시켜 준다(Kagan, 1981). 그러므로 영아들에게 있어 놀이는 또래 혹은 성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놀이의 내용이나 형식 등이 이후의 또래간 놀이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넷째, 동기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 상태이고 인간행동의 방향을 설

정하거나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개인내의 활성화된 힘이다. Morgan과 King(1971)은 동기란 유기체 내에서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는데,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활성화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원이 바로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동기는 유발되는 관점에 따라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분류된다. Deci와 Ryan(1991)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란 참여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 의욕을 갖게 하는 것으로써, 유능감, 관심, 흥미, 과제에 대한 몰입, 감정, 호기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외재적 동기란 외부로부터의 유인자극에 의해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며, 벌을 피하는 의도적 행위나 보상과 같은 외적 요인의 통제에 의한 동기를 외재적 동기라고 하였다. 영아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외재적 동기가 아닌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영아들에게 있어 감정이입은 아동이나 성인의 정서에서 발생하는 감정이입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이란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지각한 바를 느껴 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과정인데, 영아들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정서를 공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전히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나 감정이입은 연령과 관계 없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의 개념은 인지와 정서 가운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Eisenberg & Miller, 1987). 한 가지 관점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지적

상태나 조망을 인지적 역할수용을 통하여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관점은 정서적 역할수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상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Coke, Batson과 McDavis(1978)는 감정이입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이입적 반응이 유발되는 단계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동기화되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감정이입과 이타행동은 모두 타인의 조망을 인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발되며,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정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여섯째, 친사회적 행동이란 그룹 속에서도 어떤 다른 개인을 돕거나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긍정적인 태도,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Moore(1982) 역시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외적인 보상이나 벌에 관계없는 행동이며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협력하기를 포함하며 이런 친사회적 특징들의 대부분은 강화, 언어적 지시, 관찰하기, 훈련하기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어진다(이은화, 김영옥, 1997). 친사회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 친사회적 또래 관계란 또래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태도로써 도와줌, 나누기, 배려, 그리고 친절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과 관련된다. 또래 간에 돕고 나누고 위로하며 협력하는 행동이 영아들에게 나타나기 힘든 행동들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시기가 빨라지고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나

지시 등의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습득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사회·정서적 행동 관련변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영아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영아 변인으로는 성, 연령, 출생 순위, 기질 등을 들 수 있고 환경적인 변인으로는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효능감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위 일곱 가지 변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첫째, 영아의 변인 중 성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는데, 관련성을 긍정하는 연구결과와 부정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긍정하는 연구결과들을 연구대상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희, 1993)와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정아, 1990)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영숙(1992)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았으며, 만 6,7세를 대상으로 수행한 김정아(1990)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협조성이 높았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나양균(2006)의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능력은 여아가 높고 감정이입 능력은 남아가 높게 나타났고, 외현적·내면적 문제 행동에 있어서도 또래 공격성은 남아가 높고, 우울/위축 성향 등의 내면적 문제 행동은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이선영(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은 여아

가 남아보다 더 많이 하고 외현적 부적응 행동은 만 1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 2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금심(2004), 도선자(2000)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친사회성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용인되는 반면 여아는 표현적이고 순종적이 되도록 사회화되고 남아보다 공격적인 행동이 더 금지된다고 하였다.

반면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성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백지은, 1998; 한성희, 1995). 만 4,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이혜영(198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 경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Liebermam(1977)의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만 3세 때에 또래관계에서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둘째, 영유아의 연령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는 생물학적 발달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선영(2006)은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긍정적인 사회·정서적인 행동 빈도는 만 2세 영아가 만 1세 영아에 비하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내면적 부적응 행동 중에서는 사물, 생물, 장소 등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는 ‘일반적 불안’에서만 만 2세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연령에 따라 사회화 경험에 직면하면서 감정입의 반응을 학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Papalia, 1999).

셋째, 영아의 출생순위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후순위

출생 영아가 선순위 출생 영아 보다 가정내에서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후순위 출생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권인옥(2008)은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정서적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형제 유무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도미향, 윤지영, 2004)는 보고도 있다.

넷째, 영아의 기질은 사회·정서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변인 중에 하나이다(민혜영, 1998; 박경자, 1999).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영아의 발달과정에서 영아 자신의 기질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긍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즉,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기가 있는 유아들은 높은 활동성을 보이고,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더 많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한 유아들의 기질은 낮은 반응성, 낮은 정서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에게 거칠고 공격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유아는 쉬운 기질보다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많았고 위축된 유아가 말을 적게 하였다(Ballmam & McDevitt, 1980; Parker-Cohen & Bell, 1988). 양보라(2007)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은 유아의 내적통제에 부정적 효과를 주며, 적응성과 반응성은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호기심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성은 유아의 내적통제에는 긍정적 효과를, 호기심에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에 기질적으로 어려운 기질이라고 평가되었던 유아는 이후 유아기에도 기질적으로 정서조절에 어

려움을 보였고 또래와의 놀이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민혜영(1998)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문제행동, 적응, 사회적 행동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섯째, 가족은 그 자체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지속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모델링과 모방은 영아의 행동을 자극하기에 강력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양육자가 친사회적인 행동의 모델링이 되어 주는 가정에서 자란 영아는 그러한 행동을 나타낸다. 박명호(2000)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유아의 행동이 긍정적이고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와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유아가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고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였다. 김숙령(1995)의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의 만 5~6세 유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치원에서 덜 공격적이었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도 낮았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 신민경(2003)은 어머니가 한계설정의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내적통제, 또래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어머니가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며 유아의 내적통제, 호기심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은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양육스트레스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현미, 2004; 도선자, 2000; 신민경, 2003; 윤혜정, 2002; 조영숙, 2008).

일곱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윤혜정(2002), 조영숙(2008)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태도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효능감은 양육태도를 통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에 관하여 Dorsey 등과 FHPR Group(1999)은 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문태영, 2002).

2. 영아의 기질

1) 기질의 개념

갓 태어난 아기의 키·몸무게·얼굴모습이 서로 다르듯이 아기의 행동 유형 또한 출생 시부터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아기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자지러질 듯이 울지만 어떤 아기는 아주 느리고 순한 울음을 낸다. 이처럼 정서적 표현 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 양식

의 차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영아의 성격의 개인차를 기질이라 부른다 (나양균, 2006).

기질에 대한 정의는 여러 분야와 측면에서, 다양하게 기술되어 왔다. 이러한 정의들은 기질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기질의 유전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질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성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기질을 다루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Cattell(1950), Allport(1961), Buss와 Plomin(1975)이 있다. Cattell(1950)은 기질을 역동적 특성, 능력 특성과 함께 성격을 표현하는 한 특성으로 생각하였다. 기질적 특성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성과 같은 체질적인 면에 주로 관계되는 것으로 환경이 변화여도 안정성있게 나타나는 것이다(황현숙, 2003). 성격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독특성을 말하고자 한 Allport(1961)는 기질을 한 개인의 특성으로 지능, 성격과 함께 성격을 구성하는 원재료로 보았다. Allport(1961)는 기질이란 한 개인의 특징으로 주로 유전적인 정서적 본질, 즉 일반적인 기분상태, 습관적인 반응의 강도와 속도, 기분의 변동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기원은 대개 유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Goldsmith & Gottesman, 1981). Buss와 Plomin은 1975년 ‘성격발달에 관한 기질 이론’에서 아동기 초기에 나타나는 성격 특성을 기질이라 정의하고, 이는 태내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Bates, 1987, Goldsmith & Gottesman, 1981).

둘째, Thomas와 Chess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소아의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는 발달 심리학에서 개별적 접근이라고도 명명된다(Lerner, 1986).

이 방법은 기질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을 유아가 외부적 자극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행동양식 규정하고 외부의 자극, 기회, 기대 또는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되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질이란 개별 아동을 유형화하는 요인인 빠르기, 에너지 소모, 행동의 중심, 기분, 리듬성 등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발달에 대한 역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McDevitt과 Carey(1978) 역시 기질을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했다. 그들은 유아가 환경이 제공해주는 것 중에서 받아들이거나 무시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하며, 받아들인 환경자극에 대한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실제로 양육자인 부모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어간다고 하였다. 이는 Thomas와 Chess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강조하고, 기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중시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인차 연구접근방법으로, 정서로서의 기질을 강조하였기에 정서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기질이란 이 기본과정에 있어서 개인차를 나타내주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기질의 기본 과정은 반응성(reactivity)와 자기조절(self-regulation)설명하였다. 또, 이들은 기질은 단지 생리적·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비교적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기질은, 생물학적 경향성을 따르지만 그 경향성은 개개인마다 독특한 유형을 나타내고 이것은 다시 정서적 기능과 동기의 핵심을 형성해 마침내 아동 성격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Rothbart, 1986). Goldsmith와 Campos(1982)는 심리생물학적 개념에 근

거하여 기질을 정서 표현을 조직하는 구조로 표현하였다. 정서의 조직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조직화된 행동유형으로 나타나며 양육자가 쉽게 유아를 예언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Goldsmith와 Campos는 분노, 두려움, 즐거움, 흥미-접근, 운동적 활동 등과 같이 기질의 차원에 기본 관심을 두었다. 기질을 생물학적 과정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라고 정의한 Kagan(1987)은 유아의 중요한 기질적 특성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 사물, 사태에 대한 행동의 억제와 비억제라고 판단하고 연령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다양한 기질의 정의에 대해 우리나라 학자들이 종합한 것을 살펴보면, 원영미(1990)는 기질은 심리생물학적 특질을 외형적으로 반영하는 반응양식 및 그 반응양식을 스스로 조절하는 형태에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인간의 생애 초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으로, 개인의 정서적 표현 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양상의 차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라 정의하였다.

2) 기질의 구성요인

기질에 대한 정의를 내놓은 여러 학자들은 ‘기질을 무엇인가’와 더불어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학자들이 제시한 기질의 구성요인은 한 사람의 기질을 유형화하고 정의 내리게 하는 판

단 기준들이 되는 것이다. 기질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시한 기질의 구성요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질 구성 요인

학자	기질의 하위요인
Thomas & Chess (1977)	활동수준 (Activity Level) 규칙성 (Rhythmicity) 접근-회피성 (Approach-Withdrawal) 반응역 (Threshold of Responsiveness) 적응성 (Adaptability) 반응강도 (Intensity of Reaction) 기분 (Quality of Mood) 주의 전환성(Distractability) 집중력 및 지속성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Rothbart & DerryBerry (1981)	활동수준 (Activity Level) 미소와 웃음 (Smiling and Laughter) 공포 (Fear) 규제에 대한 고통 (Distress to Limitation) 진정성 (Soothability) 지속성 (Duration of Orienting)
Lerner, Palermo, Sapiro & Nesselroade (1984)	활동수준 (Activity Level) 집중력 (Attention Span) 주의전환성 (Distractability) 적응성 (Adoptability) 접근성 (Approach) 규칙성 (Rythmicity) 자극감수성(Irritability)
Buss & Plomin (1984)	정서성 (Emotionality) 활동성 (Activity) 사회성 (Sociability)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질에 대한 하위요인은 동일한 요인을 포함하거나 비슷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다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Buss와 Plomin(1975)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채택한 기질의 구성요인들이 Thomas와 Chess(1977)가 범주화한 9개의 기질요인에서 확장, 수정, 또는 재조직되었음을 볼 때, Thomas와 Chess(1977)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며 대표적인 분류라고 판단할 수 있다(천희영, 1992).

Thomas와 Chess(1977)는 출생 후부터 모든 영아들에게 개인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 아홉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활동수준(activity level)은 영아가 깨어 있을 때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신체적 움직임의 정도이다. 둘째, 규칙성(rhythmically)은 배고픔, 배설, 수면, 깨어나기 등 생리적 규칙성이다. 셋째, 접근-회피성(approach-withdrawal)은 새로운 자극(낯선 사람, 새 장난감, 새로운 음식 등)에 처음 나타나는 반응 형태로 접근성은 긍정적인 표현이며 회피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넷째, 반응역(threshold of responsiveness)은 어떤 형태의 반응이든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정도, 감각적 자극, 주위 사물이 주는 자극, 사회적 접촉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말한다. 다섯째, 적응성(adaptability)은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된 상황에서의 반응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여섯째, 반응강도(intensity of reaction)은 반응의 질이나 반응의 방향(긍정적 방향이나 부정적 방향)에 관계없는 반응의 세기나 강도를 말한다. 일곱째, 기분(quality of mood)은 불쾌하고 슬프고 적대적인 기분상태와 반대인 즐겁고 우호적인 행동의 양을 말한다. 여덟째, 주의 전환성(distractability)은 외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진

행 중인 행동으로부터 얼마나 쉽게 이탈하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아홉째, 집중력 및 지속성(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은 특정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과 그 행동을 방해 받았을 때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편, 영아의 기질과 양육효능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으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최형성, 2002)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1) 양육효능감의 개념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은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서 적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Bandura(1986)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음 또는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기대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한 과제나 상황에서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과제를 잘 수행하는 동기를 가지고 성공을 예상하며 수행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이며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효능감이 낮으면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추구하는 행동의 방향 뿐 아니라 개인의 사고 양식과 정서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근원인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정서 상태에서 양육효능감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적 근원 중에서 성공경험은 효능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다. 효능감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공능력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증거자료로서, 성공경험은 효능감을 형성하고 실패는 효능감을 훼손한다. 대리적 경험(모델링)은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델링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에 대한 예측성과 통제성을 제공한다. 성공 경험과 대리적 경험 외에도,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나 역경을 극복해야 할 때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는 효능감을 증진시킨다. 긍정적 피드백이 제공될 때 효능감과 수행이 증진되고 부정적 피드백이 제공될 때는 효능감과 수행이 감소된다. 언어적 설득에서는 그러한 설득을 하는 상대방의 지식과 신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리적 상태나 정서 상태에 대해 지식과 주위 사람들의 인식 및 평가가 중요한데, 이와 같이 각성된 상태는 긍정적인 촉발자로서 또는 부정적인 자극제로서 작용한다.

부모역할 수행 차원에서 볼 때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양육 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Scheel과 Rieckman(1998)은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이라고 정의하고,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라 정의하기도 한다(Luster & Kain, 1987).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이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라 규정하였고, Dorsey와 그의 동료들(1999)은 부모효능감에 대하여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자신의 믿음이라고 설명하였다.

안지영(2000)은 양육효능감이란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 수행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평가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부모 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양육효능감의 관련 변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사회적 지원 등 주로 다섯 가지의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향은, 정옥분, 1999; 신숙재, 1997; 양미경, 1996; 정혜인, 2003; 조복희, 현온강, 1994; 최형성, 2005).

먼저, 영아의 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아를 양육하는 경우가 남아를 양육하는 경우보다 부모의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김향은, 정옥분, 1999; 양미경, 1996; 정혜인, 2003). 이처럼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보다 높은 것에 대해 최형성(2005)은 어머니가 영아와 동성으로서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남아보다는 수월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둘째, 기질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많은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최형성(2005)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순할수록 어머니는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며 이와 반대로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들 수 있는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많

은 연구 결과에 대해 Johnson과 Martin(1983)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발달이나 학습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정혜인(2003)과 최형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밝혔으나, 이와는 달리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양육효능감과 역할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조복희, 현온강, 1994)도 볼 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몇몇 보고 들이 있다. 최형성(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남편의 협력이나 주위의 도움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는 Teti와 Gelfand(1991), 신숙재(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Levey-Shiff(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은 관련성이 없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과거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양육 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신념, 가치, 목표, 효능감 등의 인지변인이 양육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왔다(문혁준, 2005).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긍정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부모를 정서로 지지하고 칭찬한다면,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행동이 개선되고(Crokenberg, 1981), 효능감이 살아가면서 특

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능력과 실제 수행능력간의 일치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실제적 능력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실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Bohlin와 Hagekull(1987), Bor와 Sanders(2004) 및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부모 유능성과 구체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부적응 그리고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과 매우 크게 관련된다고 밝혀진바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이 부모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1999; 안지영, 2002; 이미숙, 2001).

Luster와 Kain(1987)에 의하면 자녀 양육에서 높은 효능감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아이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부모역할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효능감이 낮은 부모들은 훈육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융통성있게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일 뿐 아니라(문혁준, 1999), 어머니의 효능감은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우희정, 1993).

따라서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인 양육효능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자녀의 발달 측면에 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 연구절차, 분석방법과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성남시에 소재한 16개 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 13개소, 민간보육시설 3개소)에 2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만 16개월에서 40개월 사이의 영아 148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연구대상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54.7%로 여아의 45.3%에 비하여 다소 많았다. 영아의 연령은 만1세가 51.4%, 만2세가 48.6%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다. 형제 관계는 외동이 41.9%, 첫째가 18.9%, 둘째가 39.2%로 형제가 있는 영아가 58.1%로 조사되었다. 가족 유형을 분류한 결과 핵가족 형태는 69.6%, 확대가족은 30.4%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4세가 5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5세 이상이 25.7%, 20-29세가 16.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자가 74.3%였으며 고졸이하가 17.6%, 대학원 이상이 8.1%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3.6%이었으며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26.4%로 본 연구대상 영아의 어머니는 취업모가 과반수이상이었다.

<표 2> 대상영아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N=148)

		구 분	n	%
성별		남아	81	54.7
		여아	67	45.3
영아 연령		만1세(M=24)	76	51.4
		만2세(M=34)	72	48.6
형제 유무		외동	62	41.9
		첫째	28	18.9
		둘째	58	39.2
가족 유형		핵가족	103	69.6
		확대가족	45	30.4
모 연령		20-29세	25	16.9
		30-34세	85	57.4
		35세 이상	38	25.7
모 학력		고졸 이하	26	17.6
		대졸	110	74.3
		대학원 이상	12	8.1
모 직업		무직, 가정주부	39	26.4
		일일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내부업	6	4.1
		서비스직 종사자	7	4.7
		일반판매 종사자, 소규모 자영업	10	6.8
		일반 사무직	43	29.0
		전문직, 기업주, 고위 공무원	43	29.0
		합 계	148	100.0

2. 연구 도구

1)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ITSEA; Briggs-Gowan & Carter, 2001)를 신지연(2004)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ITSEA는 12개월~36개월 영아의 사회·정서 긍정행동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유아교육 기관에서 관찰하여 측정하는 척도이다. ITSEA는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내면적 문제행동, 조절문제의 네 가지 영역의 총 1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지난 한 달간의 영아의 행동에 근거하여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빈도나 그 정도를 3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가끔 그렇다 1점/항상 그렇다 2점)로 평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TSEA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신지연(2004)이 사용한 총 82문항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영역의 3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TSEA의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도구의 구성 및 내용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측정도구(ITSEA)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ITSEA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세부 문항	Cronbach's α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순종	8	2, 3, 4, 5, 10, 12, 15, 30	.89
	주의집중	5	6, 9, 16, 19, 28	.82
	모방/놀이	6	7, 11, 22, 23, 25, 26	.83
	동기	6	1, 8, 13, 24, 29, 37	.75
	감정이입	7	14, 17, 18, 20, 21, 27, 36	.88
	친사회적 또래관계	5	31, 32, 33, 34, 35	.84
합계		37		.97

2)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llard, Carey와 McDevitt(1978)의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TTQ)를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 가능하도록 최영희(1989)가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세에서 3세까지의 영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보고를 통하여 측정하는 질문지로 9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문항은 97개로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TTQ를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연구를 실시한 최영희(1989), 나양균(2006)은 TTQ 9가지 하위요인 중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가지 요인, 54문항을 번안하여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TTQ 54문항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아의 기질 측정도구의 구성 및 내용과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의 기질 측정도구(TTQ)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 용	문항수	세부 문항	Cronbach's α
생리적 규칙성	잠자기, 먹기, 배설 등의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어서 예측할 수 있는 정도	11	1, (5), (10), 17, (20), (23), (29), 33, (37), 43, 45	.69
접근성	낯선 음식이나 사람과 같은 새로운 자극에 접했을 때의 반응	12	4, (7), 13, 15, 22, 25, (28), 32, 42, (48), (52), 54	.80
적응성	새로운 반응에 대한 처음의 반응 이후의 적응정도를 평가	8	8, 9, 31, 34, 36, (44), (49), (51)	.67
반응 강도	반응 표현이 격렬한 정도를 평가	10	(2), 9, 11, 16, 21, 26, (30), (39), 40, 46	.66
기분	즐거운 행동이나 불쾌한 행동의 정도를 평가	13	3, (6), (12), (14), 18, 24, (27), 30, (38), 41, (47), (50), (53)	.62
합계		54		

※ 척도의 하위 문항 ()는 역 채점 문항임.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PC; Floyd, Gilliom, & Costigan, 1998)를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 가능하도록 안지영(2000)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양육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구성 및 내용과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PPC)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 인	문항수	세부 문항	Cronbach's α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인 양육효능감)	7	1, 2, 4, 6, 11, 12, 13	.76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부정적인 양육효능감)	8	3, 5, 7, 8, 9, 10, 14, 15	.75
합계	15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조사 도구의 적절성과 각 문항의 이해도 및 실시절차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대상이 아닌 성남시 소재 보육시설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2008년 8월 21일~ 8월 28일까지 만 1-2세 영아 20명과 영아의 어머니,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 교사용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도구와 어머니용 영아의 기질과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내용의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2) 본 조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과 성남시 소재의 보육시설 16개소를 임의 표집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조사는 2008년 10월 6일~10월 22일에 걸쳐서, 총 250부의 교사용 질문지(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와 어머니용 질문지(영아의 기질 및 양육효능감)를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보육시설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각 보육시설의 교사를 통하여 배부하였다. 우편발송 1~ 2주일 후에 연구자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중 203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만 2세반 영아의 월령이 40개월 이상(2005년 5월

이전 출생)인 설문지 35부, 어머니와 교사의 질문지 중 한 가지만 회수된 경우(20부)를 제외한 총 148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를 구하고 영아와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넷째,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행동의 관계, 영아의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순종, 주의집중, 모방/놀이, 동기, 감정 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의 6가지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표 6에 제시한 바에 의하면 연구대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모방/놀이가 3.6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의집중이 3.61점으로 나타났으며 감정 이입이 3.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평균 및 표준 편차

	하위요인	합계	
		<i>M</i>	(<i>SD</i>)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순종	3.55	(.73)
	주의 집중	3.61	(.71)
	모방/놀이	3.68	(.71)
	동기	3.43	(.71)
	감정 이입	3.21	(.71)
	친사회적 또래관계	3.26	(.71)
	전체 행동	3.46	(.7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영아와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개별변인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 영아 연령 및 형제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남아($M=3.33$)에 비하여 여아($M=3.61$)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74, p<.01$).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요인 중 동기와 감정이입을 제외한 순종($t=-3.87, p<.001$), 주의집중($t=-2.19, p<.05$), 모방/놀이($t=-2.64, p<.01$), 친사회적 또래관계($t=-2.59,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 요인	남아	여아	t
	M (SD)	M (SD)	
순종	3.34 (.68)	3.79 (.73)	-3.87***
주의 집중	3.49 (.69)	3.75 (.72)	-2.19*
모방/놀이	3.54 (.68)	3.85 (.77)	-2.64**
동기	3.35 (.64)	3.52 (.68)	-1.57
감정 이입	3.15 (.80)	3.27 (.80)	-.92
친사회적 또래관계	3.10 (.79)	3.45 (.88)	-2.59*
전체 행동	3.33 (.59)	3.61 (.64)	-2.74**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만 2세($M=3.62$)가 만 1세($M=3.3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9, p<.01$).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순종($t=-2.32, p<.05$), 모방/놀이($t=-2.93, p<.01$), 동기($t=-2.87, p<.01$), 감정이입($t=-3.24, p<.01$), 친사회적 또래관계($t=-3.54, p<.01$)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만 1세에 비하여 만 2세의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연령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 요인	만 1세	만 2세	<i>t</i>
	<i>M (SD)</i>	<i>M (SD)</i>	
순종	3.41 (.74)	3.69 (.71)	-2.32*
주의 집중	3.54 (.71)	3.69 (.72)	-1.27
모방/놀이	3.51 (.79)	3.86 (.64)	-2.97**
동기	3.28 (.65)	3.59 (.64)	-2.87**
감정 이입	3.01 (.86)	3.42 (.66)	-3.24**
친사회적 또래관계	3.03 (.89)	3.50 (.74)	-3.53**
전체 행동	3.30 (.66)	3.62 (.54)	-3.29**

* $p<.05$, ** $p<.01$

형제유무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형제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75, p<.05$)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외동($M=3.29$)에 비하여 형제가 있는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았다.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에서는 순종($F=3.47, p<.05$)과 주의집중($F=5.97, p<.01$)에서 형제유무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형제유무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 요인	외동	첫째	둘째 이상	F	사후검정
	M (SD)	M (SD)	M (SD)		
순종	3.38 (.76)	3.57 (.58)	3.72 (.74)	3.47*	a<b<c
주의 집중	3.39 (.73)	3.89 (.64)	3.71 (.67)	5.97**	a<b=c
모방/놀이	3.52 (.71)	3.73 (.86)	3.83 (.69)	2.86	
동기	3.29 (.65)	3.46 (.72)	3.27 (.62)	2.86	
감정 이입	3.09 (.87)	3.39 (.84)	3.25 (.69)	1.55	
친사회적 또래관계	3.10 (.83)	3.39 (.85)	3.36 (.86)	1.88	
전체 행동	3.29 (.64)	3.57 (.63)	3.57 (.59)	3.75*	a<b=c

* $p<.05$, ** $p<.01$

어머니의 배경변인 중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영아($M=3.22$)에 비하여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영아($M=3.54$)의 사회·정서적 행동 점수가 높았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77, p<.01$).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주의집중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여 순종($t=-1.99, p<.05$), 모방/놀이($t=-2.71, p<.01$), 동기($t=-2.68, p<.01$), 감정 이입($t=-2.55, p<.05$), 친사회적 또래관계($t=-2.10, p<.05$)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영아(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하여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영아(취업모의 자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0>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 요인	어머니 직업		t
	무	유	
	M (SD)	M (SD)	
순종	3.35 (.74)	3.62 (.72)	-1.98*
주의 집중	3.43 (.70)	3.67 (.71)	-1.84
모방/놀이	3.41 (.78)	3.78 (.70)	-2.71**
동기	3.19 (.74)	3.52 (.61)	-2.68**
감정 이입	2.93 (.91)	3.31 (.73)	-2.55*
친사회적 또래관계	3.02 (.88)	3.34 (.83)	-2.10*
전체 행동	3.22 (.65)	3.54 (.60)	-2.77**

* $p<.05$, ** $p<.01$

2.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이 영아의 개별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영아 기질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연구대상 영아의 기질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기분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리적 규칙성이 3.45점, 적응성이 3.32점, 반응 강도가 3.23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접근성은 2.9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영아 기질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요인	<i>M</i>	(<i>SD</i>)
생리적 규칙성	3.45	(.45)
접근성	2.91	(.56)
적응성	3.32	(.43)
반응 강도	3.23	(.45)
기분	3.65	(.37)

영아의 개별변인인 성별, 연령, 형제유무에 따른 기질의 차이 분석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 배경에 따른 영아의 기질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배경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표 12, 13, 14 참조).

우선,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의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접근성에서 여아($M=2.79$)에 비하여 남아($M=3.01$)

의 접근성($t=2.41, p<.05$)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	성 별		t
	남 아	여 아	
	M (SD)	M (SD)	
생리적 규칙성	3.47 (.50)	3.42 (.38)	.63
접근성	3.01 (.63)	2.79 (.43)	2.41*
적응성	3.33 (.46)	3.31 (.40)	.24
반응 강도	3.28 (.40)	3.16 (.49)	1.57
기분	3.65 (.38)	3.64 (.36)	.15

* $p<.05$

표 13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영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반응 강도에서 만 2세($M=3.12$)에 비하여 만 1세($M=3.33$)의 반응 강도($t=2.97, p<.05$)가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3> 연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	영아 연령		t
	만 1세	만 2세	
	M (SD)	M (SD)	
생리적 규칙성	3.46 (.51)	3.43 (.37)	.51
접근성	2.98 (.56)	2.83 (.56)	1.65
적응성	3.30 (.42)	3.34 (.45)	-.43
반응 강도	3.33 (.41)	3.12 (.46)	2.97**
기분	3.64 (.37)	3.65 (.37)	-.15

** $p<.01$

표 14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의 배경변인 중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였다($F=3.45, p<.05$).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접근성은 어머니 연령이 35세 이상($M=2.71$)일 때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20-29세($M=2.94$)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30-34세($M=2.99$)인 영아의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	어머니 연령			F	사후 검정
	20-29세	30-34세	35세 이상		
	M (SD)	M (SD)	M (SD)		
생리적 규칙성	3.38 (.41)	3.51 (.45)	3.35 (.45)	1.99	
접근성	2.94 (.41)	2.99 (.58)	2.71 (.56)	3.45*	
적응성	3.34 (.43)	3.36 (.46)	3.21 (.36)	1.76	c<a<b
반응 강도	3.21 (.60)	3.24 (.44)	3.22 (.36)	.06	
기분	3.68 (.34)	3.68 (.39)	3.57 (.35)	1.23	

* $p<.05$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인 긍정적인 양육효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인 부정적인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역코딩하여 긍정적인 양육효능감과 평균한 전체 양육효능감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전체 양육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5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점수 범위 1~5점 중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 3.03으로 보통 정도이었으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평균 2.85로 나타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자신감이 다소 높았다. 한편, 영아의 개별변인과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6, 17 참조).

<표 15>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 요인		<i>M</i>	(<i>SD</i>)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3.03	(.58)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2.85	(.53)
	전체 양육효능감	2.59	(.48)

<표 16> 영아의 개별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구 분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한	전체 양육효능감
		자신감	어려움	
		<i>M (SD)</i>	<i>M (SD)</i>	<i>M (SD)</i>
성별	남아	2.96 (.63)	2.91 (.56)	2.53 (.53)
	여아	3.12 (.49)	2.78 (.47)	2.67 (.40)
	<i>t</i>	-1.61	1.57	-1.84
영아 연령	만1세	3.01 (.56)	2.86 (.53)	2.57 (.46)
	만2세	3.06 (.59)	2.84 (.53)	2.61 (.50)
	<i>t</i>	-.49	.27	-.44
형제 유무	외동	2.91 (.60)	2.90 (.56)	2.51 (.50)
	첫째	3.13 (.50)	2.79 (.51)	2.67 (.44)
	둘째	3.11 (.57)	2.82 (.50)	2.64 (.47)
	<i>F</i>	2.25	.57	1.72
합계		3.03 (.58)	2.85 (.53)	2.59 (.48)

<표 17>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구 분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한	전체 양육효능감
		자신감	어려움	
		<i>M (SD)</i>	<i>M (SD)</i>	<i>M (SD)</i>
모 연령	20-29세	3.20 (.39)	2.85 (.48)	2.68 (.33)
	30-34세	2.98 (.59)	2.86 (.57)	2.56 (.52)
	35세 이상	3.04 (.64)	2.84 (.47)	2.60 (.48)
	<i>F</i>	1.42	.20	.58
모 학력	고졸 이하	3.18 (.55)	2.75 (.49)	2.71 (.38)
	대졸	3.00 (.60)	2.88 (.53)	2.56 (.51)
	대학원 이상	3.00 (.39)	2.75 (.57)	2.62 (.38)
	<i>F</i>	1.06	.87	1.14
모 직업	직업 무	3.04 (.60)	2.83 (.51)	2.60 (.46)
	직업 유	3.03 (.57)	2.86 (.53)	2.59 (.49)
	<i>t</i>	.06	-.32	.22
합계		3.03 (.58)	2.85 (.53)	2.59 (.48)

4.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의 관계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기질 및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양육효능감의 세 변인들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8 참조).

첫째,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r=.23, p<.01$), 기분($r=.17, p<.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반응강도($r=-.19, p<.05$)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영아가 적응성과 기분이 좋을수록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아지고 반응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 중 생리적 규칙성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r=.20, p<.0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접근성은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순종($r=-.19, p<.05$), 주의집중($r=-.16, p<.05$)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접근성이 높을수록 순종과 주의집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성은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주의집중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적응성이 높을수록 순종($r=.22, p<.01$), 모방/놀이($r=.20, p<.05$), 동기($r=.22, p<.01$), 감정이입($r=.19, p<.05$), 친사회적 또래관계($r=.21, p<.05$)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반응강도는 사회·정서적 행

<표 18>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양육효능감의 관계

구 분	기질 하위요인				사회·정서적 행동							양육효능감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 강도	기분	순종	주의 집중	모방/ 놀이	동기	감정 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	전체 사회정서행동	부모역할 자신감	부모역할 어려움	전체 양육 효능감	
기	생리적 규칙성	1														
질	접근성	.24**	1													
하	적응성	.34**	.25**	1												
위	반응 강도	-.17*	.06	-.27**	1											
인	기분	.44**	.28**	.53**	-.36**	1										
	순종	.19	-.19*	.22**	-.14	.10	1									
사	주의 집중	.11	-.16*	.13	-.06	.01	.70**	1								
회	모방/놀이	.10	-.06	.20*	-.20*	.19*	.63**	.57**	1							
정	동기	.14	-.10	.22**	-.14	.14	.67**	.66**	.77**	1						
서	감정 이입	.12	.00	.19*	-.17*	.21**	.49**	.45**	.79**	.67**	1					
적	친사회적또래관계	.20*	-.13	.21*	-.22**	.21**	.69**	.54**	.71**	.64**	.67**	1				
행	전체사회정서행동	.16	-.13	.23**	-.19*	.17*	.83**	.77**	.89**	.87**	.82**	.85**	1			
동	부모역할 자신감	.28**	.27**	.29**	-.08	.22**	.16	.13	.06	.16	.08	.04	.12	1		
양	부모역할 어려움	-.29**	-.14	-.26**	.19*	-.35**	-.16	-.05	-.12	-.19*	-.11	-.13	-.15	-.50**	1	
육	전체 양육효능감	.33**	.24**	.32**	-.15	.33**	.18*	.10	.10	.20*	.11	.09	.15	.88**	-.85**	1
효																
능																
감																

* $p < .05$, ** $p < .01$

동의 하위요인 중 모방/놀이($r=-.20, p<.05$), 감정이입($r=-.17, p<.05$), 친사회적 또래관계($r=-.22,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반응 강도가 높을수록 모방/놀이,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기분은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모방/놀이($r=.19, p<.05$), 감정이입($r=.21, p<.01$), 친사회적 또래관계($r=.21,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영아의 기분이 좋을수록 모방/놀이,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인 반응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생리적 규칙성($r=.33, p<.01$), 접근성($r=.24, p<.01$), 적응성($r=.32, p<.01$), 기분($r=.33, p<.01$)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 중 반응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생리적 규칙성($r=.28, p<.01$), 접근성($r=.27, p<.01$), 적응성($r=.29, p<.01$), 기분($r=.17, p<.05$)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기질 하위요인 중 생리적 규칙성($r=-.29, p<.01$), 적응성($r=-.26, p<.01$), 기분($r=-.35,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반응강도($r=-.19, p<.05$)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생리적 규칙성, 적응성, 기분이 낮을수록, 반응강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즉, 생리적 규칙성, 적응성, 기분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지며 반응 강도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전체 사회·정서적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 일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순종($r=.18, p<.05$), 동기($r=.20, p<.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순종과 동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 요인 중 동기($r=-.19, p<.05$)와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영아의 동기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 배경변인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연구대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살펴본 결과, 영아들은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에서 모방/놀이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의집중 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감정이입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첫째, 영아의 개별 변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의 개별변인인 성별, 연령 및 형제유무에 따라 모두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연령은 만 1

세에 비하여 만 2세 영아가, 형제유무는 외동에 비하여 형제가 있을 때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여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도현심(1994), 조복희(2001)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선영(2006), 정미숙(2007)이 보고한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주의집중과 모방/놀이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이선영(2006)이 보고한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에서 만 2세가 만 1세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또래를 좋아하게 되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형제유무에 따라 사회·정서적 행동을 살펴본 결과, 외동에 비하여 형제가 있는 첫째와 둘째 이상일 때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 외동아에 비하여 형제가 있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형제가 있는 유아와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한 연구(Abramovitch, Corter & Pepler, 1981; Ching, 1982; Dunn, 1983)에서 형제가 있는 유아들이 외동아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반면, 김정아(1990), 송나리(1992)의 연구는 학령 전

아동인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김난실(2004)의 형제유무에 따라 또래간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의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영아의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영아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어머니와 생활하는 영아에 비해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영아는 제한된 시간 동안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사회적 발달이나 정서발달 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Rubenstein & Howes, 1983), 오히려 영아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부드러운 눈' 과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가 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현정환, 2003). 즉,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질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와의 신체적 분리보다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무관심이나 애정의 결핍이라는 심리적 분리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Andry(196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반면 김숙경(1984), 안현숙(1999), 최경순(1995)의 연구는 보육시설 이용 유아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보

다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Belsky와 Rovine(1988)의 연구에서도 매주 20시간 이상 시설보육경험을 하는 영아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불안정하여 이로 인해 나중에는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영아가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정서적 행동을 보인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용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발달에 대해 염려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에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영아의 기질

영아의 개별변인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기질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 영아의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접근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여아에 비하여 남아가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미경(2003)이 보고한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수준, 접근-회피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최영희(1988)의 영아의 기질 분포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새로운 것에 접근하는 경향이 높으며 반응강도가 낮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Hsu, Soon과 Striger(1981) 및 Carey와 Mcvitt(1978)는 4~8개월 영아들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새로운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순영, 임춘금, 2007 재인용).

영아의 연령에 따라서도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 강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만2세에 비하여 만1세의 반응 강도가 높았다. 전미경(2003)이 보고한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접근회피와 반응강도가 만 1세아가 만 2세아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어린 연령의 영아일수록 외부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함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현미(2004)가 보고한 양육효능감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영아와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영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및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윤은미(2006)의 연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숙재(1997), 최형성(200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부모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영아의 개별변인과 어머니 배경변인 등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차이가 난다는 서로 다른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문태영, 2002; 문혁준, 1999; 윤혜정, 2006; 최해숙, 2008).

4)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 영아의 기질, 사회·정서적 행동, 양육효능감의 세 변인들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첫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기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 기분과 정적 상관관계를, 반응강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적응성과 기분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이 높아지고 반응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대체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고 사회적 능력이 높았으며(민혜영, 1998; 박경자, 2000), 기분에 있어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분상태를 지닌 유아일수록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을 많이 보이고 문제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1994). 양보라(2007)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 반응성, 정서성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외 김명숙(2008), 김

현미(2004), 나양균(2006), 안라리(2005), 정영선(2004)의 연구도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다.

서수경(1993)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유아는 적응성이 낮고 반응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과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Thomas와 Chess(1968)가 보고한 기질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인 기분상태와 높은 반응강도가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과 기분이 높고 반응강도가 낮을수록 영아들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아들이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 중 반응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기분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기분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낮아지며 반응 강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윤진

(2007)이 보고한 유아의 기질 하위요인인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결과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구한 최형성(2002)이 보고한 아동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집중성, 지속성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영아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수면, 식사, 배설에 관련된 생리적 기능의 주기가 규칙적이고 영아의 즐거운 기분을 보는 것과 새로운 사건이나 사물을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영아의 양육을 담당해온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이 영아를 제대로 양육하여 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머니는 양육자로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의 전체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요인 중 순종, 동기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순종과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영아의 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높은 양육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심리사회학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김희진, 1993; 문

태영, 2000; Dorsey et al., 1999)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홍계옥, 2001)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유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김혜영, 2006; 윤은미, 2004; 최혜숙, 2008)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영아의 순종과 동기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간의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동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는 영아와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이런 경우 영아가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 결론 및 제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경향은 어떠한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및 기질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만 1세에 비하여

만 2세 영아가, 외동에 비하여 형제가 있는 영아가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또한, 영아의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영아의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기질에서도 영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접근성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높았으며 반응강도는 만 2세 영아에 비해 만 1세 영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및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세 변인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기질간의 관계에서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성과 기분 수준이 높고 반응강도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기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는 사회·정서적 행동 하위요인 중 순종과 동기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영아 148명과 어머니를 임의표집 하였다. 집단

의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임의표집으로 배경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를 통한 질문지 측정을 하였다. 비록, 영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의 교사가 평가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질문지 이외의 객관화된 관찰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만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였다. 대체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 하더라도 영아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가족과의 관계 및 종일제 보육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의 질 및 보육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계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았으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외에 어머니의 기질, 양육태도, 양육신념, 언어유형 등 어머니의 다른 변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권인옥 (2008). 영아의 보육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주영, 이영 (1997). 보육교사 행동의 질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21(4), 358-399.
- 김미숙 (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신건강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자 (1995). 영유아기 탁아경험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종행동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미국과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비교적 관점에서. 유아교육연구, 15(1), 21-38.
- 김숙령 (1997). 영유아기의 탁아 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김영채 (1995). 사고와 문제해결 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자숙 (1999). 유아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정서적 적응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1998).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학위논문.
- 기금심 (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양균 (2006). 영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학위논문.
- 나양균, 이영환, 한지현 (2006). 만1세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영유아보육학회지, 44.
- 남옥선 (2007).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만 2세(25~36개월)영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민지 (2008). 기질의 같고 다름에 따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선자 (2000).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정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의 관심, 보호성, 아동의 성 및 출생범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기자 (2006).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

구 논문.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 (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민혜영 (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환경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자 (1992). 영유아기 타아 양육이 학령 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217-227.
- 박명호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연 (2005). 취업모 자녀의 사회·정서적 행동 반응 관련 요인: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은 (1998).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김연진, 이경화, 윤혜경, 송주미, 장미경, 윤석희, 이배근, 최원기 (1999). 영유아 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송나리 (1992).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실 (2004). 만 2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경 (2003).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2004).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정서 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 최석란 (2005).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정서 행동. 아동학회지, 26(1), 137-154.
- 이은화, 김영옥 (1987).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 안재연 (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현숙 (1999).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보라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숙 (2000). 영아의 타아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현숙, 조복희 (2001). 타아기관의 질, 타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유아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81-193

- 연미희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25(7), 111-122.
- 우미경 (2005).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1993). 가정 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은미 (2005).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 (2006). 영아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 현온강 (2007). 영아 및 어머니의 기질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7), 1-17.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유아교육개론. 서울: 양서원.
- 이경희 (1995). 유아기관의 질적 수준, 유아의 기질,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이순영, 임춘금 (2007). 어머니와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11(1), 257-275.
- 이윤진 (2007).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 영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1985).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의 양육태도 변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희 (1987).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영희 (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전미경 (200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 (2007).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1992).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4). 영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 (1992).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 (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 17-34.
- 최경순 (1995). 어머니 취업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변인.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40(1), 315-335

- 최영희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성의 (199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 수용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환 (2003). 보육시설 보육경험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고. 교수논총. 24(1), 581-606
- 홍계옥 (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모자 애착 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ramovitch, R., Corter, C., Pepler, D. J., & Stanhope, L. (1986). Sibling and peer interaction: A final follow-up and a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7, 217-229
- Ainsworth, M. D. S., Blehar, M. E.,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dry, R. G.(1960). *Delinquency and Parental Patbology*. Methuen.
- Baumrid, D.(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ion. in A.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7, pp.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J: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Bates, J. E.(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2nd. Ed., Wiley. pp.1101-1149.
- Briggs-Gowan, M. J., Carter, A. S., Jones, S. M., & Little, T. D. (2003). The 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ITSEA):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5), 495-514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7
- Buss, A. H. & Plomin, R.(1986).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rey, W. B. & McDevitt, S. E. (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 735-739.
- Coke, J. S., Baston, C. D. & McDavis, K.(1978).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A Two-Stag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7), 752-776.
- Ching, C. C.(1982). The One Child Family in China: The Need for Psycho-social reserch.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pp.208-212.
- Crockenberg, S. & McCluskey, M. (1986), Change in material behavior

- during the baby's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7, 746
- Derryberry, D. & Rothbart, M. K.(1984). Emotion, attention, and temperament, In C. E.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i, E. L. & Ryan, R. M.(1991)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orsey, S., Klein, K., Forehea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raper, W.(1990). Emotional Development. In R. M. Thomas(Ed.) *The encyclopedia of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theory, research, studies*(pp.415-422). Oxford; Pergamon Press
-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 Eisenberg, N. & Miller, P. A.(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Floyd, F., Gillion, L. A., & Costigan, C. L.(198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oldsmith, H. H. & Gottenman. (1981). Origins of variation in behavioral

- style; A Longitudinal study of temperament in young twins. *Child Development, 52*, 91-103.
- Goldsmith, H. H. & Campos, J. J.(1982). Genetic influenc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it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99.
- Hughes, F. P., Elicker J., & Veen, L. C.(1995) A program of play for infant and their care givers. *Young Children, 50*(2), 52-58.
- Rubenstein, J. L. & Howes, C. (1983).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toddlers in day care, *Advances in Early Education and Day Care, 3*, pp.13-15.
- Clarke-Stewart K. A., Gruber C. P., & Fitzgerald L. M. (1994), *Children at Home and in Day Care* Hillsdale, NJ: Erlbaum.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peers, relationships with attachments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81-1287.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1-101). New York: Wiley

- Malatesta C. Z. (1982) Learning display ro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4), 991-1003.
- McDevitt, C., & Carey. W. B.(1978).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3-7 Year Old Children. *Jornal og Chil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245-253.
- Moore, S. G. (1982). *Prosocial behavior in the early Years: Parent and peer influence*. In *Handbook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d.). Bernard Spodek.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of Publishing Co.
- Morison, P. & Masten, A. (1991). Peer reputation in middle childhood as a predictor of adaption in adolescence: A seven-year folluw-up. *Child Development*, 62, 991-1007.
- Morgan, C. & King, R.(1971) *Introduction to Psychology*. New York: A Division of McGraw Hill.
- Parker-Cohen, N. Y. & Bell, R. Q.(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erttit, G. Dodge, K., & Brown,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 Psychology*(Vol. 1, 27-86). Hilldals, NJ: Erlbum.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h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 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l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y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homas, A. & Chess, S. (1984).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 Chess, S. (1984). Genesis and evaluation of behavioral: From infancy to early adult life. *Americal Jornal of Psychiatry*, 141, 1-9.

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eir Temperament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Jung, Jum-ok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and useful informations to mothers who try to improve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and the parenting efficacy for them in consideration of their temperamental traits, through the examinations of the general tendency about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eir temperament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and the examination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eir temperament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in this study;

1. Does the background variable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make any differences to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2. Does the background variable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make any differences to the temperament of infants?
3. Does the background variable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make any differences to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ir mothers?
4. What is the relationships among their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eir temperament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48 infants and their mothers from 16 daycare centers for early children in Seoul and Seongnam, which included 13 national/ public daycare centers and three private ones. The infants were 16 to 40 months old and attended the daycare centers over two months or more. The instruments used to assess the socioemotional behavior and temperament of the infants were ITSEA and TTQ, and PPC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 mo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by utiliz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Duncan's post-hoc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according to all the personal variables involving gender, age, relationship with siblings. Those who were baby girls, who were at the western age of 2 and who have siblings excelled their counterparts who were baby boys, who were at the western age of 1 and who had no siblings in socioemotional behavior. Among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mothers, occupation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 The infants whose mothers were working surpassed their counterparts whose mothers weren't in that regard.

Second, the gender and age which are subcategories of their temperamen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ir temperament. Accessibility of infant boys was higher than that of infants girls, response intensity of infants 1 year old was higher than that of infants 2 year old.

Third, the parenting efficacy wasn't different i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temperament of the infants, their socioemotional behavior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 mothers. As for connections between the socioemotional behavior and temperament of the infants, better adaptability, better mood and stronger response intensity, which were all subfactors of temperament, led to more positive socioemotional behavior. Regarding links between their temperament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 mothers, better psychological regularity, closer accessibility, better adaptability and better mood that

were the subfactors of temperament led to the better parenting efficacy of the mothers. As for connections between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the infants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 mothers, stronger obedience and stronger motivation that were the subfactors of socioemotional behavior led to the better parenting efficacy of the mothers.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영아의 긍정적 정서와 행동들이지만, 어떤 항목들은 영아기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에 정답은 없으며, 평소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아의 행동에 가까운 내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지도교수 : 권정윤
연구자 : 정점옥

◆ 영아기 사회·정서적 행동 체크리스트

영아 이름 ;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	
선생님께서 이 영아를 처음 맡으신 정확한 시기는 200 년 _____ 월부터	

위 영아를 생각하면서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이 해당 영아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칸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무엇인가 성공하고 나면 즐거움을 표현한다 (예; 손뼉을 친다).			
2	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치운다.			
3	규칙을 따른다.			
4	“씻” 했을 때 조용히 한다.			
5	어른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려고 한다.			
6	5분 또는 그 이상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다.			
7	공을 교사에게로 굴려 보낼 수 있다 (또는 다른 아이에게도).			
8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해서 노력한다.			
9	혼자서 그림책을 본다.			
10	옷 입을 때 돕는다(예; 소매에 팔을 끼운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 낸다(예; 면도하기).			
12	바르게 (안전하게) 잘 행동한다.			
13	무엇이든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14	교사가 화가 났을 때 기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15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시킬 동안 안전히 있다.			
16	책을 읽어줄 때 5분간 앉아 있다.			
17	타인이 다쳤을 때 걱정하거나 동요한다.			
18	잘못을 저지른 후 ‘만회해 보려고’ 노력한다.			
19	오랜 시간동안 집중할 수 있다(TV보기 제외).			
20	다른 이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21	타인이 다쳤을 때 도우려고 한다 (예; 놀잇감을 집어준다).			
22	교사가 영아에게 요구하면 즐거운 소리를 흉내 낸다.			
23	어떤 물체로 다른 것인 양 흉내 내며 논다 (예; 바나나를 전화기로 사용).			
24	도전적인 활동들을 좋아한다.			
25	인형이나 동물인형 등을 끌어안아 주거나 먹여준다.			
26	손뼉을 치거나 “바이-바이” 손짓하는 것을 따라한다.			
27	교사를 미소 짓거나 웃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주거나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장난친다.			
28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주의집중을 한다.			
29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는다.			
30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때 순종한다.			
31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때 놀잇감을 친절히 요구한다.			
32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잘 논다.			
33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때 차례를 잘 지킨다.			
34	적어도 한명의 친한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35	다른 친구들과 엄마, 아빠(상징놀이)놀이를 한다.			
36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예; 엄마 화났어, 선생님 화났어).			
37	무언가 고안해 내는 것을 좋아한다(예; 블록 쌓기).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영아의 성향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정답은 없으며, 평소 어머니님의 생각이나 영아의 성향에 가까운 내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님이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님의 응답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지도교수 : 권정윤

연구자 : 정점옥

◆ 다음의 문항은 본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표 또는 적절한 답을 적어주십시오.

1. 대상 영아의 성명; _____
2. 대상 영아의 성별; 남자() 여자()
3. 대상 영아의 출생년도; ()년 ()월 (예; 2006년 2월)
4. 대상 영아의 출생순위; ()남 ()녀 중 ()째
5. 영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아빠() ② 엄마() ③ 형제자매()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_____); 직접 적어주십시오.
6. 어머니의 연령; 만 ()세
7. 어머니의 교육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 및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이상()
8. 어머니의 직업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무직, 가정주부
② ()일일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내부업
③ ()서비스직 종사자-상점, 음식점, 미장원 등
④ ()일반판매 종사자, 소규모 자영업
⑤ ()일반 사무직
⑥ ()전문직, 기업주, 고위 공무원

◆ 다음은 부모 역할에 대한 어머니들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생각하면서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부모 역할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어렵지 않다.				
3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고 진빠지게 한다.				
4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5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서,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6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걱정된다.				
8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9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10	때론 아이를 소홀히 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11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중의 하나이다.				
12	부모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13	내가 아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14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 ◆ 이 질문지는 영아의 성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와 주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가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중 영아의 평소 행동에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매일 비슷한 시간(30분이내)에 잠자리에 든다.						
2	음식을 먹을 때 좋거나 싫은 표시를 하지 않고 조용히 먹는다.						
3	새로운 장소에 처음가면 기분이 좋다.						
4	의사에게 처음가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다.						
5	대변보는 시각이 매일 1시간 이상 다르다.						
6	잠에서 깨어나면 울면서 칭얼대거나 상을 찌푸린다.						
7	낯선 사람이 봐주려고 하면 울거나 엄마에게 매달린다.						
8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과자를 3,4분 정도 늦게 주어도 잘 참고 기다린다.						
9	하던 일이 안되면 큰소리로 울거나 발을 구른다.						
10	밤에 자기 전에 우유나 과자를 먹고 싶어 할 때도 있다.						
11	칭찬해 주면 큰소리로 웃거나 팔짝 팔짝 뛴다.						
12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운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3	처음 보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다가가서 장난을 한다.						
14	대변을 본 후 밑을 닦아 주면 울거나 칭얼댄다.						
15	처음 보는 어른과 잘 논다.						
16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운다.						
17	한끼에 먹는 음식양이 매일 비슷하다.						
18	배고플 때도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좋은 기분으로 기다린다.						
19	얼굴을 씻길 때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20	하루 마시는 우유 양이 일정하지 않다.						
21	배가 부를때 음식을 더 주면 음식을 뱉거나 입을 꼭 다물거나 손가락을 손으로 밀쳐낸다.						
22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23	배고파하며 음식을 찾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24	낮잠이나 밤잠을 자려고 누울 때 기분좋아한다.						
25	처음 보는 어른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체 한다.						
26	자기 뜻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운다.						
27	감기에 걸렸거나 배가 아프면 보채고 언짢아 한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28	낮선 곳(가게나 남의 집)에 가면 처음 몇 분 동안은 엄마에게 매달려 있다.						
29	낮잠 자기 시작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이상씩 틀리다.						
30	아이가 놀 때 부모가 방해해도 싫거나 좋은 표시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단지 인상을 찌푸리거나 미소만 짓는다).						
31	옷 입히거나 벗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32	처음 보는 어른과도 잘 나간다.						
33	하루 중 아이가 몸을 가장 활발히 움직이며 노는 시간이 매일 비슷하다.						
34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말로만 타일러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						
35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 웃거나 미소짓는다.						
36	한두 번 호되게 야단맞았던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37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매일 한 시간 이상 다르다.						
38	하루 종일 언짢아하고 보챈다.						
39	다른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가져도 상을 찌푸리기만 한다.						
40	심하게 울 때는 팔을 휘젓거나 발을 구르며 몸을 흔든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41	얼굴을 씻겨주는 동안 기분이 좋아서 웃거나 미소짓는다.						
42	집에서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서면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가까이 간다.						
43	저녁 식사 때쯤 되면 배고파한다.						
44	부모가 여러 번 경고해도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계속 간다.						
45	매일 비슷한 시간 동안 잠을 잔다.						
46	엄마 이외의 아이 보는 사람이 올 때 아이는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큰소리 지르며 맞이한다.						
47	야단맞고 나면 3, 4분 이상 기분이 좋지 않다.						
48	다른 아이를 처음 만나면 수줍어하며 엄마에게 매달리거나 엄마 뒤로 숨는다.						
49	낯선 사람과 15분 이상 같이 있어도 계속 경계한다.						
50	새로운 일(혼자 양말을 신는다든지 장난감을 치우는 일)을 처음 배울 때 싫어하거나 운다.						
51	낯선 곳에 가면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52	부모가 옆에 있더라도 남의 유모차에 앉으면 불안해 한다.						
53	혼자 놀게 내버려두면 투덜대거나 상을 찌푸린다.						
54	낯선 집이나 가게에 가도 10분 이내에 곧 익숙해진다.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가정을 꾸리며 일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으나 대학원과정
정을 마치고 이렇게 논문이라는 작은 결실을 맺기까지 제게 힘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힘든 순간마다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꼼
꼼한 지도로 이끌어 주신 권정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이문옥 교수님, 배지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
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직장과 가사일로도 버거워 실천할 용기를 낼 수
없던 저에게 다시 배움의 길을 견도록 이끌어주며 많은 배려를 해주신 상아어
린이집 김명희 원장님과 따뜻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신 보육
시설평가인증사무국 선생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를 허락해주신 보육시설과 김현숙 원장님, 정오순 원장님, 유금미
원장님, 전영옥 원장님, 전용순 원장님, 김정임 선생님, 그리고 논문 쓰면서 힘
들 때마다 힘이 되어 준 직장동료 권오순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빈진희 선생
님과 나의 친구 이정현, 방후불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인 가족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
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소홀한 점이 많았지만 사랑과 인내로 지켜봐 준 남편
과 스스로 자기일을 잘 해낸 웃는 얼굴이 예쁜 딸 해란이, 듬직하고 멋진 아
들 해용이, 멀리서 저를 응원하며 자랑스러워하시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님께도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12월 정점옥 드림.